

## 여론조사도 '총선 여론'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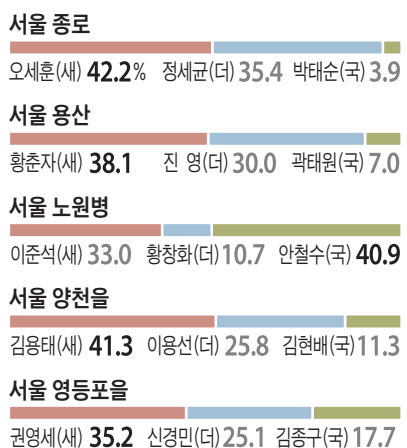
### 총선 D-5

조사 기관·방법에 따라 10%p 차이 날뻐기도 다반사  
 판세 예측 불가능한 선거  
 與野, 접전 수도권 집중 유세

여야는 4·13 총선 판세에 대해 서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체 지역구(253곳)의 절반가량이 걸린 수도권(122곳)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뒤죽박죽인데다, 그나마 7일부터 하는 여론조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도 없다. 말 그대로 '블랙아웃(blackout·대정전)'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 셈이다.

여론조사는 어떤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느냐에 따라 같은 날 같은 지역 조사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 서울 조사는 SBS·TNS코리아가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가 45.4%로 35.6%를 얻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0%포인트가량 앞섰다. 하지만 같은 날 발표된 YTN·엠펜리언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 44.8%, 오 후보 42.2%로 승패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휴대전화로 넣느냐 빼느냐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자체 실시한 1·2차 여론조사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 것도 같은 이유다.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는 "유선 전화만으로 실시한 1차 조사 때는 예컨대 서울 49곳 중 37곳 정도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휴대전화를 20% 섞은 2차 조사에서는 서울 49곳 중 단 7곳만 오세 지역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조로 여론조사도 SBS·TNS코리아는 유선 전화만으로 이뤄졌고, YTN·엠펜리언은 유선 전화에 휴대전화를 20%가량 포함한 결과였다.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여론조사 때문에 여야의 판세 예측도 널뛰고 있다. 새누리당은 2차 조사에 근거해 이번 총선에서 127석(비례대표 포함) 정도밖에 못 얻을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자체 조사 결과 우세 지역을 "60~70곳 정도"라고 했다. 더민주는 우세 지역에다 경합지 40여 곳 중 절반을 가져간다고 가정하고, 비례대표 예상 의석 15석을 합쳐 100석 안팎을 예상하고 있다. 이때 두 당이 전체 300석 중 220여 석 정도만 차지한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판세가 불투명하고 접



※2016년 4월 5-6일 미디어리서치 조사, 유선 전화 RDD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 성·연령·지역별로 표본을 비례 할당 및 체계적 추출. 2016년 2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 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상세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전 지역이 많을수록 여야 어느 한쪽이 대승하고 다른 쪽은 대패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깜깜이' 판세 속에 여야는 접전 지역이 많은 수도권에 당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김부겸 새누리당 대표는 7일 서울 지역 12곳 집중 유세에 나섰고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인천·경기 아홉 지역을 돌았다. 새누리당은 막판 전략이 '읍소(泣訴)'다. 승패가 예측 불가인 만큼 최대한 몸을

낮추고 마지막까지 표를 호소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7일 '반성과 다짐의 노래(반다송)'를 불렀고 후보들은 공천 파동에 관해 무를 꿏고 사죄했다. 더민주도 비슷한 전략이다. 문 전 대표는 7일 인천에서 "아권 분열의 큰 책임이 저한테 있다"며 "송구스럽다"고 했고, 김 대표는 6일 "광주가 어려울 때 도움을 못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홍영림·황대진 기자  
 총선 기사 A3·4·5·6·8·10면

## 5兆 적자 現重노조의 생떼

"적자 나더라도 성과급 최소 250% 보장하라  
 임금피크제 없애고, 年100명 해외연수 보내달라"

임단협 요구... 社측 "할 말 잃어"

9분기(27개월)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총 4조9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내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노동조합이 7일 회사 측에 "적자가 나더라도 성과급은 연간 최소 기본급의 250%를 보장하고, 여름휴가는 9일에서 11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임금 단체 협상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또 매년 조합원 100명 이상 해외 연수, 임금피크제 폐지, 연금여 6%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 정년퇴직자와 동일한 규모의 신규 채용 등을 요구했다. 협상안에는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同數)로 구성해 징계 하고는 3분의 2 찬성으로 해야 하며,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보장해 달라는 등 인사권과 경영권 개입 조항도 있다.

현대중공업은 글로벌 경기 불황과 해양플랜트 사업 손실로 작년 초에는 사무직만 1300여명 감원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다. 그러나 불황이 계속되면서 올 들어 1분기에 단 3척의 배만 수주하는 등 창사 이래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생존을 위해 뭐든지 줄여가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주요 요구안

- 적자가 나도 기본급의 250% 성과급 보장
- 여름 휴가 11일 연장
- 기본급 작년 대비 6%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
- 정년퇴직자 수와 같은 규모 신규 직원 채용
- 매년 조합원 100명 이상 해외연수 실시
- 임금피크제 폐지
- 노조에 사외이사 추천권 보장

가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기는 협상안을 내놓으니 할 말을 잃는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과거 호황기에 사측은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 임금 인상을 자제해왔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때 쌓은 유보금을 활용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때 19년 연속 무분규를 기록했던 현대중공업은 실적이 어려워진 2013년부터 강성노조원들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과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의 이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해양플랜트 부문 물량이 선주사에 인도되고 나면 일감이 줄어들어 거제 지역에서만 최소 2만여 명의 실직자가 생기는 등 고용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며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인열 기자 기사 B3면

IS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女軍... 세계 최강인 까닭은 A2면

## 청와대 "陳 검사장 진상규명 먼저"... 사표수리 보류

(주식 특혜매입 의혹)

청와대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의 넥스 비상장(非上場) 주식 특혜 매입 의혹과 관련, 진 검사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진 검사장이 잘못된 게 없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힌 다음,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경위와 매입 자금 출처, 직무 연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사표 수리 또는 검찰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6일 진 검사장에게 20여개 질문사항을 담아 소명(疏明)요구서를 보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선(先) 진상 규명, 후(後) 사표 수리' 원칙은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婚外) 아들 논란 때도 적용됐다. 최재혁 기자 기사 A11면

발행면수 A32·B8·C8·D8

### 八面鋒

국민의당, 수도권에서도 상승세. 하긴 19대 때 새누리·더민주 행태 같으면 그리 신기한 일도 아닌 듯.

靑 "현직 검사의 주식 대박 의혹 진상 밝히라." 이 지침 기다리느라 법무부는 열흘 넘게 묵인 수했.

日, 쇼펜하우어 등서 투표 가능토록 법 개정. 우리도 정치 혐오증 갈수록 커지면 그렇게 되려나.

## 자유총연맹, 통일나눔 동참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통일나눔펀드 조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연맹 본부에서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안병훈 이사장과 MOU(양해각서)를 맺고 통일나눔펀드 모금과 통일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연맹의 16대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은 100만 통일 장애 요원을 만든다는 자세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100만 통일 선봉대가 5000만, 나아가 8000만 민족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 수 있도록 통일과 나눔 재단에 더 많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일과 나눔 재단이 우리 연맹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북에 알려지면 그곳 주민들은 '아, 남한 동료들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에게 큰 고무와 격려가 될 것"이라며 "(이번 MOU 체결이)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긍정적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A27면에 계속 이용수 기자

이영FBC 대표전화: 080-732-0101  
 와인나라닷컴: www.win나라.com

## 무한도전의 시대 맥스첼린지가 당신의 기대를 증명하다

CHALLENGE AGAIN FOR THE PERFECT EXPERIENCE

최고의 영가 에라주리조의 대표 와인의 도전  
 최고에서는 최소 4년 이상의 숙성 기간을  
 이겨낸 와인에만 Reserve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의 철저함 그대만을 이점으로 가진 'MAX RESERVA'  
 김락의 최고처에 도전하세요

세계적인 주류 매거진 'Drink International' 선정  
**가장 존경 받는 와인 브랜드 TOP 10**

세계 3대 와인 매거진 'Wine & Spirits' 선정  
**BEST BUY 와인**

세계적인 와인 전문가 제임스 S. 새뮤얼 / 와인 스펙타이터 평가  
**통일가격대 최고 점수 최다 보유**

맥스 첼린지 프모션은 전국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와인나라 직영점에서 4월 한달간 전시 진행됩니다.



# 집 전화 조사선 不敗후보, 휴대전화 섞으니 역전당해

## 넌뛰기 여론조사

작년 12월부터 4월 6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는 총 1570건이다. 하루 평균 12건 정도 여론조사가 나온 셈이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지역 조사도 서로 엇갈리는 등 선거 판세 파악에 오히려 혼란을 주고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집 전화를 사용하는 유권자가 줄어들고, 휴대전화 사용자들의 거주지 정보는 여론조사 회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 전화 조사에선 상대 후보를 앞서지 못한 후보가 휴대 전화를 일부 반영한 조사에선 역전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 ◇방법에 따라 조사 결과 달라

지난 5~6일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서울 영등포를 조사 결과는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35.2%)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후보(25.1%)를 오차범위(±4.3%포인트) 밖인 10.1%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인 5~6일 실시한 YTN·**엠브레인** 조사에선 반대로 더민주 신 후보(36.4%)가 새누리당 권 후보(33.2%)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경기 고양갑의 경우엔 지난 2~5일

## 집 전화 조사

집 전화 없는 가구 40% 달해 젊은층 응답 적어 與에 유리 연령별로 가중치 부여해 조사 원칙 지키면 정확할 수도

## 휴대전화 혼합 조사

野 지지층 많은 20~40대 표심 반영 비율 높여 조금 더 정확 자발적 가입한 패널 응답자 활용 특정 정치성향 많이 포함될 우려

SBS·TNS 조사에서 새누리당 손범규 후보(42.2%)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36.4%)의 차이가 5.8%포인트였다. 하지만 5~6일 YTN·**엠브레인** 조사에선 심 후보(43.7%)가 손 후보를 9.4%포인트 차이로 뚜렷하게 앞섰다.

여론조사 결과가 일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조사 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서울 종로외의 경우 3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각 언론에서 12번 조사를 실시했는데 10번의 집 전화 조사에선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더



새누리당 지도부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공동선대위원장 회의에서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안형환 선대위 대변인, 원유철·김무성·서청원 공동 선대위원장, 이근현 공동총괄본부장, 이윤용 종합상황실장.

민주 정세군 후보를 앞섰다. 휴대전화를 포함해 조사한 5~6일 **엠브레인** 조사에서 정 후보(44.8%)가 오 후보(42.2%)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역전했다. 서울 용산, 구로갑, 영등포를 등 여당과 야당 후보의 우세가 엇갈리는 지역도 집 전화 조사와 휴대 전화를 포함한 조사의 차이로 인해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미디어리서치와 TNS, 코리아리서치 등 다수의 조사 회사는 충선 조사에서 집 전화만 사용한다. 휴대전화의 경우 전화 번호부가 없어서 253개 지역구별로 거주자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정당도 공천 과정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 안심번호는 법적으로 정당에서만 쓸 수 있다.

그러나 집 전화가 없는 가구가 40%에 달하고 특히 이들 중엔 상대적으로 야당 지지층이 많은 20~40대 가구가 많아서 야당 성향 유권자의 표심(票心)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튀는' 휴대전화 패널 조사, 맞을까 이런 문제를 줄여보기 위해 **엠브레인** 등 일부 조사회사에선 자체 모집한 패널의 휴대전화 번호를 지역별로 20~30%가량 섞어서 쓴다. 패널(panel)이란 여론조

사를 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구성된 조사 대상자 집단을 말한다. 현행법으로는 휴대전화 가입자를 여론조사에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집단을 구성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이다. **엠브레인** 이병일 상무는 "젊은 층의 경우는 집 전화로는 응답자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워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휴대전화도 포함해야 전체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미디

어리서치 이양훈 수석 부장은 "집 전화 조사에서도 조사원을 대규모로 투입해 최대한 젊은 층을 찾았고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연령별 인구와 비례하도록 표본을 구성했다"며 "선거구별로 정치 성향이 다른 소지역을 세분화해서 조사하는 등 집 전화 조사도 원칙을 지킬 경우 정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휴대전화도 포함하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대 김석호 교수는 "휴대전화를 활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

한 패널 응답자를 활용하는 것은 특정 정치 성향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조사에 많이 포함될 위험성이 있다"며 "갈수록 집 전화 보유 가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 전화로만 조사하는 것도 단점이 있다"고 했다. 서울대 한규섭 교수는 "실제 민심은 여론 또는 아련이 유리한 여론조사의 중간쯤 있을 것 같다"며 "정당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언론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유권자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영림 기자

지역	조사 방법	새누리당(세)	더불어민주당(더)	정의당(정)
서울 종로	오세훈(세) 45.4	정세균(더) 35.6	오세훈(세) 42.2	정세균(더) 44.8
	4월 2~5일 SBS-TNS	4월 5~6일 YTN-엠브레인		
서울 용산	황춘자(세) 38.1	진영(더) 30.0	황춘자(세) 31.9	진영(더) 32.1
	4월 5~6일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3월 27~28일 중앙일보-엠브레인		
서울 영등포	권영세(세) 35.2	신경민(더) 25.1	권영세(세) 33.2	신경민(더) 36.4
	4월 5~6일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	4월 5~6일 YTN-엠브레인		
서울 구로갑	김승제(세) 34.7	이인영(더) 35.0	김승제(세) 32.7	이인영(더) 45.5
	3월 25일 한국일보-KRC	4월 3~5일 YTN-엠브레인		
경기 고양갑	손범규(세) 42.2	심상정(정) 36.4	손범규(세) 34.3	심상정(정) 43.7
	4월 2~5일 SBS-TNS코리아	4월 5~6일 YTN-엠브레인		

미디어리서치·TNS·KRC 조사는 유선전화 조사, 엠브레인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패널 혼합 조사. 각 여론조사사의 상세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 새누리 "휴대전화+적극 투표층 반영하니 127석"

### 黨 여의도연구원 자체 조사

새누리당이 4·13 총선 판세를 심각한 위기로 판단하게 된 것은 지난 3~4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전국 200여 개 선거구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때문이다.

여의도연구원이 이 조사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의 총선 의석수가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127석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하자 당 지도부와 후보들은 전국 각지에서 '사죄(謝罪)' 릴레이를 벌이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자체 여론조사 시스템을 갖고 있다. 자동응답기(ARS)를 이용한 조사다. 기존에는 이 기

수도권 확실 우세는 22곳 그쳐 "TK 4~5곳, PK 3~4곳 내줄 듯"

계로 집 전화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주로 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는 휴대전화를 20% 비율로 섞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드시 투표하러 나가겠다'는 적극 투표층만을 조사했다. 통상 휴대 전화를 추가하면 야당의 지지율이 다소 올라간다. 반면 적극 투표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보수 정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때문에 일반 조사와 결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안형환 선대위 대변인은 "공천 파동 이전과 비교해서 적극 투표층에서 새누리당의 지지를

이 지역구별로 평균 7~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서울·경기·인천의 122개 지역구 가운데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분류한 지역구는 22개에 불과했다. "경합 우세"를 포함해도 37개였다. 대구·경북에서는 4~5개 지역구가, 부산·경남에서는 3~4개 지역구가 야당 혹은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권의 경우에도 절반을 건지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우리 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야에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거나 국민의당 지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걱정스럽다"고 했다. 최승훈 기자

## 더민주 "우세는 60~65곳... 100석 조금 넘을 것"

### 안심번호 60·유선전화 40% 조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7일 더민주의 총선 예상 의석수에 대해 "60~70석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70석 정도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엄살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정장진 선거대책본부장은 "김 대표가 말하는 것은 당 자체 분석 결과 253개 지역구 중 현재 우세한 지역 총수를 뜻한다"고 했다. 전체 예상 의석 수는 아니라는 얘기도 했다.

더민주의 자체 여론조사와 각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를 종합해 판세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우세 지역을 60~65개 정도로 보고 있다. 경합 지역은 40여곳으로 판단한다. 정 본부장은 "우세 지역을 다

수도권 우세지역 40~45곳 영남에서도 4곳 우세로 판단

이기고, 경합 지역을 절반 정도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지역구 85석 안팎에 비해 대표 15석 정도를 더해 현재로서는 100석을 좁히는 수준으로 본다"고 했다.

더민주는 120곳 이상에서 자체 여론조사하고 있다. 특히 통신사에 요청해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받아 조사에 쓰고 있다. 안심번호 60%, 유선전화 40% 비율로 한다. 이철희 선대위 상황실장은 "유선전화만으로 조사하는 것보다 유선과 무선 전화를 잘 배합해 조사했을 때 실제 득표율에 근접한다고 본다"고 했다. 일반 여론조사보다 당 조사가 좀 더 신뢰도가 높을 것이라는 뜻이다. 또 통상 샘플을 지역구

별로 500개씩 하는데 당 조사는 700개씩 한다. 이 때문에 언론사 조사에서는 더민주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당 자체 조사에서는 접전인 곳이 몇 군데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분석을 통해 더민주의 수도권 122석 중 40~45석(서울 15~17, 인천 5~6, 경기 20~22) 정도를 우세로 꼽는다. 경합은 30여곳으로 보고 있다. 호남에서는 우세 지역을 7~8곳(광주 1, 전남 3~4, 전북 2~3)이라고 했다. 다만 "호남 표심이 바닥을 찍고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충청권에서는 5~6군데(대전 2, 충남 2~3, 충북 1)라고 했다. 영남에서는 4곳(대구 1, 부산 1, 경남 2)을 우세로 봤다. 강원과 제주에선 각각 1곳씩을 우세 지역이라고 했다. 정녹용 기자